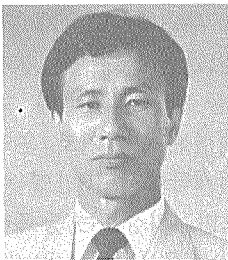


동계 CES를 참관하고 나서.....



김 백 락
본회 전시과장

세계 電子産業의 발전상과 시장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The 1991 Winter Consumer Electronics Show (Winter CES)가 지난 1월 10일부터 13일(4일간)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콘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의 Hilton, Mirage, Riviera, Sahara Hotel에서 開催되었다.

본 展示會에는 주요 선진공업국의 전자·전기업체, 전자관련업체, 전문메거진 등 1,550개 업체가 參加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자업체로는 (株)金星社, 大宇電子(株), 三星電子(株), (株)SKC 등 10여개사가 出品하였다. 우리 전자업체들이 세계 有名 전자업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먼 이국의 수출 시장 현장에서 보면서 전자공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아울러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전자제품의 지속적인 輸出신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마음 또한 금할 길이 없었다.

본회는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이 新技術에 대한 국제적인 現況을 파악하여 세계전자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會員社를 대상으로 參觀團을 모집하여 大鳳精密工業(株)의 韓鳳熙사장을 단장으로 하여 麒麟電子(株)의 李起芳 사장, 白山電子(株)의 李慶薰 사장, 榮포리머의 朴光榮 사장, (株)세모의 李淳摸 사업본부장, 그리고 筆者를 간사로 하여 20명이 參觀하였다.

본 參觀團의 夤緣목적대로 現地 바이어들의 제품선호도에 따른 新製品 개발을 촉진하고 出品業體들과는 각 업체에서 生産하는 자사제품에 대한 공급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目的을 달성한 것으로 귀국 간담회에서 평가 되었다.

또한 歸國길에 美國 전자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산호세의 실리콘벨리를 방문, 세계 최대 컴퓨터 전문회사인 IBM의 하드웨어 生産工場과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그리고 전자의료기기 전문회사인 Varian을 방문하여 우리 參觀團





일행은 Varian의 증역진 브리핑과 생산라인 소개 등 많은 배려에 대단히 만족한 분위기였으며, 앞으로 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海外 주요 展示會에 參觀團을 수시로 모집하여 이러한 기회가 많은 회원업체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본 筆者는 한국전자전람회(KES)를 주관하는 실무담당자로서 금번 Winter CES를 참관하고 전시장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살펴보고 한국전자전람회 개최에 대한 개선방안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CES와 KES를 비교하여 느낀바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첫째 : 展示品 진열에 있어서 철저한 品目別 중심으로 전시되고 있어 바이어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商品의 선택이 매우 편리하였으나 우리 KES 참가업체들은 경쟁사와의 인접전시를 기피하고 있다.

둘째 : Audio 출품업체들은 음향 차단실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 전시하여 다소 소리는 낮으나 인접업체와 경쟁적으로 소리를 높이지 않아 展示場 분위기가 매우 안정된 느낌을 받았으나 우리 KES에 참가하고 있는 Audio 업체들은 상호 경쟁적으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시장 전

체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세째 : CES 參觀者들은 일반대중 즉, 어린이, 청소년, 부녀자, 노약자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부분 전시회 종사자나 구매자들로서 展示場이 혼잡하지 않고 매우 세련된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60여개국에서 10만명 이상이 참관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등록비 명목으로 1인당 US \$30(한화 : 22,000원 정도)를 받고 등록자 명찰을 부여 받으면 주변호텔은 물론 전시기간중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KES에는 전시회 성격에 대체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일반대중 즉, 어린이 및 부녀자, 학생, 노약자 등이 展示場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관람하고 있어서 전시장이 매우 혼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바이어들의 상담활동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네째 : 전시장내 장치물이 대부분 Open형으로 조립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단기간의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인력, 시간,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참가업체들의 전시회 참가에 따른 최대 공약수를 찾을

冬季 CES 參觀 일정표

月日	場 所	時刻	旅 程
1/10 (목)	서울 라스베가스	16:30	서울 김포국제공항 출발
		09:20	시애틀(타코마 공항) 도착
		13:11	시애틀 출발
		15:25	라스베가스도착 Hotel : Continental
1/11 (금)	라스베가스	10:00	CES 참관
17:00			
1/13 (일)			Hotel : Continental
1/14 (월)	라스베가스 산호세	10:18	라스베가스 출발
		11:40	산호세 도착
		14:00	질리콘 벨리 내 업체 방문
		17:00	(Varian Co, Ltd.)
		18:30	샌프란시스코 도착 Hotel : Holiday Inn
1/15 (화)	샌프란시스코	09:00	IBM 방문 및 견학
		14:30	
		15:00	귀국 준비
		18:00	Hotel : Holiday Inn
1/16 (수)	샌프란시스코	10:00	샌프란시스코 출발
		11:14	LA 도착
		12:10	LA 출발
1/17 (목)	서울	18:50	서울 김포공항 도착

冬季 CES 參觀단 명단

업 체 명	직 위 및 성 명	생 산 품 목
대봉정밀공업(주)	대표이사 한봉희	(단장) VTR 부품, 컴퓨터부품
한국통신	공장장 유춘근	Interphone, Intercom
"	차장 권준상	
(주)세모	사업본부장 이순모	Monitor, LCD
"	부장 정익석	
영포리머	대표이사 박광영	Silicone Rubber Key Pad
(주)한국안테나	상무 박세화	VHF Antenna
"	부장 박종호	"
기린전자(주)	대표이사 이기방	Poly-Varicon
	전소연	
백산전자	대표이사 이경훈	Cable TV Converter
보성화립	대표이사 임흥규	Switch
"	안종태	
"	박소곤	
"	김종진	
동서산업	대표이사 윤원석	컴퓨터 주변기기
"	대리 이보원	
보람디자인	차장 박덕기	장치업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과장 김백락	(간사) 본회 전시과장
(주)세기항공	계장 권상용	안내

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주최자와 참가업체간의 상호공존하는 정신은 물론 出品業體 개개인이 서로 자숙하고 양보하는 정신으로 임한다면 앞으로의 KES는 개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무한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참가업체 전시담당 책임자와 장치업체 디자이너 등 전시회와 관련한 종사자들이 해외주요 전시회를 수시로 참관하여 국제적인 전시회 감각을 익힐 수 있기를 바라며 IBM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호영 엔지니어 그리고 한국IBM의 대외업무 담당 매니저인 張京浩 부장에게도 감사드리며, 뻘뻘한 참관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참관단 여러분에게 본회를 대표한 간사의 입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수 있으나 우리 KES 참가업체들은 전시 규모, 전시물품, 전시장치 등을 서로 경쟁적으로 참가하고 있어서 단기간 전시회 개최에 비하여 낭비가 크다는 점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이후의 한국전자전람회 개최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시급히 요망되